



"사내 못난 것은 북문에 가 호강받는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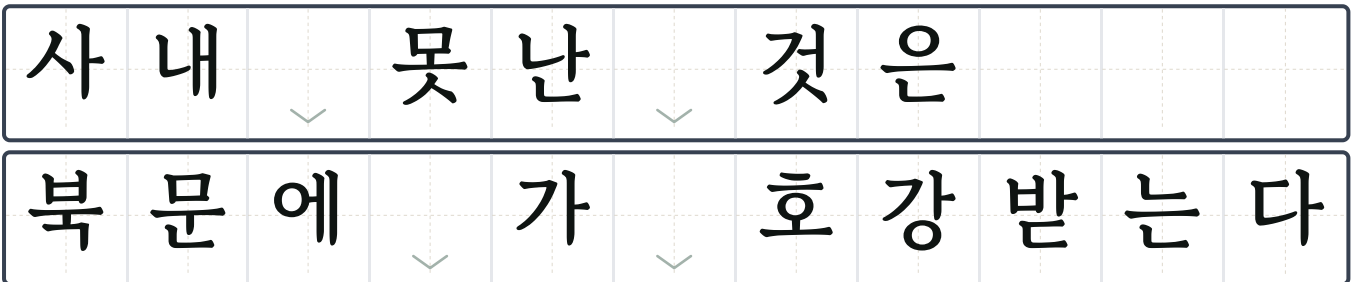
뜻: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을 알아주고 환영해주는 특별한 장소나 상황을 만나면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장소 · 환경 · 대우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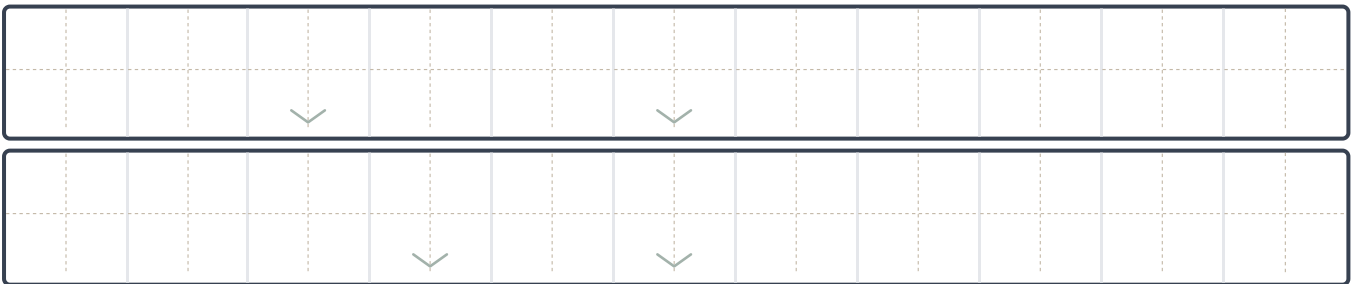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사내] [못난] [것은] [북문] [에] [가] [호강] [받는다]

웹에서 보기

